

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8강 'Pivoting 전략, 마음경영 리더십'

최윤희 2M커뮤니케이션 대표

# “결과 안 좋을땐 과감한 방향 전환을”

### “성공 공식 불통의 시대” 기존 축 전환 'Pivoting' 전략 주목 여유 지녀야 진정한 강자...상대 니즈·정서적 소통 고려해야

“평생을 쌓아온 성공 공식이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과감히 초점과 트렌드 등에 맞춰 'Pivoting', 즉 축을 바꿔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27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8강에서 최윤희 2M커뮤니케이션 대표가 'Pivoting 전략, 마음경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대표는 먼저 같은 원자로 구성됐지만 결합 방식에 따라 성질이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물질 '동소체(同素體)'의 대표적 예인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며 강연의 화두를 던졌다.

최 대표는 “이 둘 모두 탄소라는 원소로 태어났으나 시간이 지나 온도, 압력, 바람 등 자극을 통해 가치가 천차만별로 벌어지게 됐다”며 “리

더 또한 어떠한 사업과 인간 관계에 있어 가치를 낮추거나 폭발적으로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힘줘 말했다.

이어 리더를 “영향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라 정의하며, 리더의 필수 덕목으로 '상황 판단 능력'과 '이끄는 능력'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수가 뚝뚝 튀어나오는 예측 불가, 통제 불능의 시대”라며 “오늘날의 리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과 동시에 강한 멘탈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가져야만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제주도의 매서운 바다바람을 이겨내는 열기설기 쌓은 돌담을 예로 들어 '진정한 강함'에 대해 시사했다.



본보 주최로 지난 27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8강에서 최윤희 2M커뮤니케이션 대표가 'Pivoting 전략, 마음경영 리더십'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대표는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진정한 강자는 소통의 통로와 여유 공간이 확보된 사람”이라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외부 소리를 잘못 들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해소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이 불굴의 의지로 기계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도 쫓지만, 죽을 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암담한 인간의 미래를 보여준 일화인 맨몸으로 최첨단 기계와 맞서 이겼으나 결국 즉사했던 흑인 철도 노동자 존 헨리를 언급하며 강의를 정리했다.

최 대표는 “최선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최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관계이건 투자이건 결과값이 안 좋을 때는 최선에 앞서 축을 바꾸는 Pivoting 과정, 즉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점을 맞추고 상대의 니즈와 정서적 소통을 고려했을 때에야 비로소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올바른 방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전남대 명예박사학위'

전남대학교는 28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기업 경영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가족과 친지, 초등학교 친구들에서부터 계열사 및 협력사, 광주상공회의소, 전남대 총동창회와 대학 주요 보직 교수 등이 대거 참석해 정창선 회장이 명예박사가 된 것을 축하했다.

정창선 회장은 “60년 동안 건설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로 한길만을 걸어왔는데, 영광스럽게도 전남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창선 전남대 총장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앞장서 개척하며 중흥그룹의 신뢰를 이뤄낸 정 회장이야말로 명예경영학박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다이어 기자



진도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책회의

진도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예방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 현황 및 교통안전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각 부서별로 총력 대응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차로 목근무로 인한 일시적인 혼잡, 어르신대상 교통안전교육, 시설 개선, 사고요인행위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총력 대응에 전 직원들이 동참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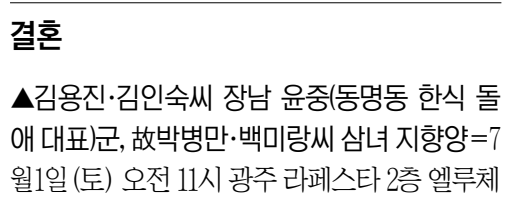
목포경찰서-현대차 목포북항점 '범죄 피해 다문화가정 지원' 협약

목포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에서 현대자동차 목포북항점과 범죄 피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준영 목포경찰서장과 현대자동차 북항대리점, 목포시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으며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중백 현대자동차 북항대리점 대표는 “목포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내밀겠다”며 “매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교통안전공단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정책세미나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와 배터리 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장이 열렸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 국민회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차량기술사회,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해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국회,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해택 (사)차량기술사회 회장은 “현재 전기자동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어 고장이나 사고로

/오복기 기자



## LX 광주전남본부 '지역사회 청렴문화 동참' 결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 청렴실천 결의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동참을 결의한 이번 행사에서 LX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고위직부터 청렴실천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과 부패·정탁·갑질 3무(無) 실천 결의를 다졌다.

또 참여 기관들은 다음달 3-5일을 청렴주간(청바지 Day)으로 지정, 공동실천과제와 각 기관별 실천과제 달성에 뜻을 모았다.

김영욱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세대 간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소통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달 '청바지 Day'에서 청렴캠페인과 현행캠페인, 관리자와 MZ세대가 함께 하는 '도전! 청렴골든벨'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 전남도, 나주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대응 모의훈련

전남도는 28일 나주 이장동 일원에서 치매 실종 환자 발생 신속 대응과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개최했다.

전남도광역치매센터와 나주시치매안심센터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응 훈련은 전남경찰청,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치매안심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마을 일대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된 가

상 시나리오를 구성한 상황별 역할을 부여해 실종 신고부터 상황 전파, 수색, 발견, 보호자 연계 순으로 진행해 전반적인 실종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드론 2대를 투입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 실종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했다.

이날 진행된 모의훈련 과정은 영상으로 제작해 치매 관련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전남도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 시·군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 광주축산농협, 조합원 자녀에 학습꾸러미 세트 전달

광주축산농협은 28일 “전날 여름방학을 앞두고 미취학 아동, 초등생 자녀를 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학습꾸러미 세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농협지원단의 지원을 통해 농·축산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지역 교육여건 향상과 조합원 자녀분들의 학습 의욕 고취·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전달된 학습꾸러미 세트는 물감, 크레파스 등 14가지 물품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다.

김효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훗날 큰 인재로 성장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 담양교육청, 청죽골마을학교 하계 가족캠프 성료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2023 청죽골마을학교 하계 가족캠프'를 담양리조트 야외수영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2023년 청죽골마을학교 학생, 학부모, 활동가, 박장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경숙 미래혁신교육팀 장학사 등 120여명이 참석해 신나는 물놀이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모든 마을학교, 학부모회, 진로체험처 등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 리조트 수영장에 갈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숙 담양교육지원청장은 “담양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청죽골마을학교 1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태환경교육을 공통 주제로 정하고 멘토-멘티제, 마을학교 순회 연수 등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상생교육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구현하고자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해남경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해남경찰서는 “최근 해남읍 101스퀘어 사거리 및 해남 동초등학교 앞에서 해남군청, 해남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법규 준수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전단지 배부 및 물티슈, 카카오톡 등 홍보용품 운전자와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동초등학교 앞 통행 차량에 대해 안전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를 펼쳤다.



공정원 해남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람이 차보다 먼저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교통안전공단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정책세미나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와 배터리 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장이 열렸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 국민회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차량기술사회,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해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국회,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해택 (사)차량기술사회 회장은 “현재 전기자동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어 고장이나 사고로



전기자동차가 입고돼도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차 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명확한 정비사업자별 정비작업 기준 설정과 시설장비 표준화, 전기차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복기 기자